기업가정신,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전쟁이 남긴 흔적〉
환경 파괴와 국제법의 역할

이름	박*정
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학번	2024****

<목차>

Ⅰ. 서론

Ⅱ.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국제적 책임

1. 전쟁으로 인한 주요 환경 파괴 사례

(1) 베트남 전쟁

(2) 걸프전쟁

(3) 우크라이나 전쟁

2. 기존 국제법 체계의 한계

(1) 환경보호 조약의 실효성 부족

(2) 전쟁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의 한계

Ⅲ. 강력한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

1. 전쟁 중 환경 파괴 예방 효과

(1)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

(2) 환경 파괴의 국제 범죄화

Ⅳ. 결론

Ⅰ. 서론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전쟁은 단순히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와 수질 오염, 걸프전쟁 중 석유 유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와 대기 오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은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단기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기후 변화와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제네바 협정과 같은 조약들을 통해 전쟁 중 환경 파괴를 규제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기존 조약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환경 파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전쟁 중 발생한 피해를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국제법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주요 사례와 기존 국제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국제적 책임

1. 전쟁으로 인한 주요 환경 파괴 사례

전쟁은 국제적 무력 충돌이든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든 필연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1]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에까지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쟁이 초래한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의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오렌지탄'으로 알려진 제초제를 약 1,900만 갤런 이상 살포해 400만 에이커 이상의 경작지를 오염시켰다. 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또한 네이팜탄은 산림을 불태우고 농업용 수로를 파괴했으며, 이는 황폐화와 야생동물 대량 희생으로 이어졌다.[2]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황무지로 변하며 복구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전쟁 이후에도 주민들의 생존 환경을 위협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베트남 전쟁은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

1) 박병도, 「국제인도법과 환경보호」, 『사회과학연구』 vol. 15, 2002, pp. 55-74.
2) 편집부, 「베트남 30년 전쟁으로 환경 파괴 극심」, 『월간말』 vol. 8, 1985, p. 51.

국제 사회가 전쟁 중 환경 파괴를 다루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걸프전쟁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다국적군의 무력 행사 개시로 시작된 걸프전쟁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했다. 이라크는 전쟁 중 쿠웨이트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고, 대규모 원유 유출과 유정 방화를 일으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3] 이로 인해 쿠웨이트와 그 주변 해역은 원유로 오염되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석유의 기름띠가 해안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이라크 군은 쿠웨이트의 700개 이상 석유 유정을 방화하여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대기로 방출되었고, 이는 대기 오염을 초래했다. 유정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검은 연기와 유해 물질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켰으며, 기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이 대규모로 퍼져서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됐다.

걸프전쟁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는 단기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고, 전쟁 후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복구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사회가 전쟁 중 환경 파괴를 제재하고 예방할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대규모 폭격과 군사 작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자연환경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산업시설과 화학 공장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유독성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대기로 방출되었고,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4]이는 토양 오염과 수질 악화를 초래하여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 작전으로 농경지가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되어 농업 생산성이 급감하였으며, 산림과 천연보호구역이 파괴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환경 피해가 국경을 넘어 주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쟁 중 환경 파괴가 초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기존 국제법 체계의 한계

(1) 환경보호 조약의 실효성 부족

전쟁 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제 조약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1977년 제네바 협정 추가 의정서[5]는 전쟁 중 환경 파괴를 금지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가 모호한 정의와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김도연, 「전쟁으로 가자지구 환경 '재앙적' 피해...모든 예측 뛰어넘는 피해발생」, <<DAILY ONE HEALTH>>, 2023. 12. 21.

4) 최서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 500억달러…“에코사이드 범죄”」, <<경향신문>>, 2023. 02. 21.

5)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1977.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러한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전쟁 중 공격 대상이 된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과 토양 및 수질 오염은 명백히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기존의 조약은 환경 파괴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이를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의 환경보호 조약은 각 국가의 비준 여부에 따라 구속력이 달라지며,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큰 한계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보호 조약이 전쟁 중 환경 파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 전쟁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의 한계

전쟁 중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전쟁 중 환경 파괴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기관이 환경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환경 파괴를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6] 이는 환경 파괴 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틀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 수집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기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경 오염 역시 명백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쟁 중 환경 파괴를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전쟁 당사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국제법이 무력화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법적 강제력의 한계는 전쟁 중 환경 파괴를 방지하거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국제법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쟁 중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Ⅲ. 강력한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

1. 전쟁 중 환경 파괴 예방 효과

(1)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

전쟁 중 환경 파괴를 예방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는 환경 파괴를 규제하는 일부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7] 이는 처벌의 강도가 낮거나, 강대국의

---

6) 권남희, 「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해제」,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17, pp. 11-36.

7) 김재명, 「[분석 전쟁과 환경] 지구촌 환경 파괴의 또 다른 주범은 누구인가?」, <<민족21>> vol. 78, 2007.9.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법적 집행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8] 강력한 처벌 체계가 구축된다면 전쟁 중 환경 파괴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려는 행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처벌 강화는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국 또는 책임자에게 경제적 배상과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석유 시설 파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전쟁 이후에도 복구가 더뎠는데, 이처럼 가해국에 복구 비용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면 억제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면 환경 파괴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에게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통해 환경 파괴 행위를 전쟁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집행될 수 있으며, 주요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처벌은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다. 예를 들어, 1977년 제네바 협정 추가 의정서에 있는 환경 파괴 금지 규정을 더 규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2) 환경 파괴를 국제적 범죄로

환경 파괴를 국제적 범죄로 명백히하는 것은 전쟁 중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전쟁 중 환경 파괴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여 처벌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에코사이드(ecocide)[9]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국제법에 도입하고 이를 전쟁 범죄 수준으로 규정한다면, 책임 추궁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국제적으로 환경 파괴를 범죄로 간주하려면 기존의 법적 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피해를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해'로 규정하는 대신, 토양, 수질, 대기 오염 수준에 따른 정량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 중 환경 파괴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관할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기소 권한은 제한적이다.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포함하는 움직임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환경 파괴를 국제적 범죄로 지정하면, 이는 단순한 처벌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전쟁 중 생태계 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

8) 임예준,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논의의 발전과 전망 –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1회독 초안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vol. 7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pp. 387-427.

9) 에코사이드(ecocide)란 집단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에서 유래된 용어로, '집'이라는 뜻의 'oikos'와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cide'를 더하여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불러오는 파괴행위 즉,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말이다.

Ⅳ. 결론

전쟁은 환경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는 단순히 전쟁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보고서는 베트남 전쟁, 걸프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환경 피해 사례를 통해 전쟁이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국제법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환경 파괴를 방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전쟁 중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 파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전쟁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환경 복구를 지원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도전이다. 국제 사회가 이를 인식하고 단합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전쟁 중 환경 피해를 줄이고 평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남희,「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해제」,『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17.

김도연,「전쟁으로 가자지구 환경 '재앙적' 피해...모든 예측 뛰어넘는 피해발생」, <<DAILY ONE HEALTH>>, 2023. 12. 21.

김재명,「[분석 전쟁과 환경] 지구촌 환경 파괴의 또 다른 주범은 누구인가?」, <<민족21>> vol. 78, 2007.9.

박병도,「국제인도법과 환경보호」,『사회과학연구』vol. 15, 2002.

임예준,「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논의의 발전과 전망 -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1회독 초안을 중심으로」,『법학논고』vol. 7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1977.

최서은,「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 500억달러…“에코사이드 범죄”」, <<경향신문>>, 2023. 02. 21.

편집부,「베트남 30년 전쟁으로 환경 파괴 극심」,『월간말』vol. 8, 1985.